



회동 수원지 수변길

도심 속 수변마을
회동수원지 이야기

산중 호수가 부릅니다.
힘들고 지친 길손들은 오라고!
호수와 오솔길, 숲이 아우러진 회동수원지 둘레길.
부산이 아끼고 숨겨둔 곳.
풀과 오솔길, 숲과 새들을 불러 치유의 축제를 벌이고 싶은 곳.

걸어 보면입니다.
물이주는 편안함과 술이주는 위안이 얼마나 큰지지.
발길에 그리움을 실어 산책에 나섭니다.
길방에 아기 산책(2층)을 담섭니다.
보이는 게 산하고 만나는 게 책임입니다.

걸어 보면입니다.
그리움이 사랑보다 한발 먼저 간다는 것을.
이런 수놓은 길이 우리 길에 있다는 것은 행운이자 축복입니다.
차유의 수원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행안내

금정구 문화관광과 051-519-4081~4



오는 길

구서동 지하철역 → 선동 상현마을
마을버스 2번 출구 / 마을버스 3-1번 승차→상현마을
도 보 금정경찰서→금정구청→40분

장전동 지하철역 → 윤산 → 회동수원지길
마을버스 2번 출구 / 마을버스 3-1번 승차→40분

온천장 지하철역 → 윤산 → 회동수원지길
마을버스 온천장역 출구 / 마을버스 6번 6-1번→40분
도 보 지하철역→부산국제주연세대학교→서동→윤산역 [1km, 20분]

시내버스 부곡4동 주연세대학교 79번, 89번, 179번 승차→서동고개 하차
최동동 42번, 99번, 179번 종점→회동댐
시내버스 42, 99, 179번 종점 하차(도보 10분)→회동수원지길

버스노선

비스온홀 경유지

금정구-1
(마을버스)
금정구-2
(마을버스)

금정구-3
(마을버스)

회동수원지길 노선

금정구-4
(마을버스)

회동수원지길 노선

금정구-5
(마을버스)

회동수원지길 노선

금정구-6
(마을버스)

회동수원지길 노선

* 회동수원지길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9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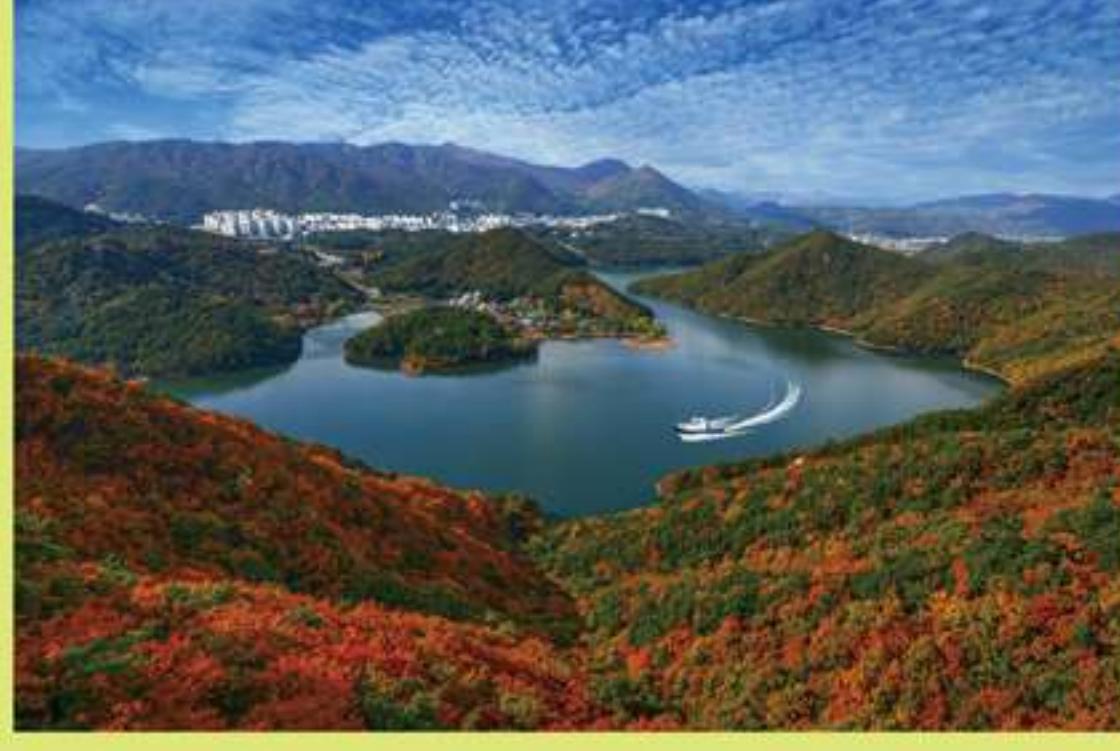
회동수원지길

8.7km / 2시간 30분 소요

동대교 → 명장정수사업소(회동지소) → 회동댐

오른데 → 상현마을

호수의 숲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이를다음은 길을 걷고 있으며, 1986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45년만에 개방된 회동수원지길은 오랜 역사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걸고 싶은 산책길로 각광받고 있다.



땅뫼산황토숲길

황토길과 흙길, 편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이름다운 땅뫼산은 오른본동 안쪽의 대단한 들판이다. 편백나무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와 맨발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호수의 전망대가 갖는 즐거움을 한껏 더해준다.



갈맷길 7-2코스

13.0km / 5시간 소요

동문 → 북문 → 범어사 → 노포동 고속버스터미널

스포원파크 → 부산포트케이트 → 상현마을

성자곡수원지에서 시작되는 7코스로 들어서면 금정산성을 따라 회동수원지 상현마을까지 이른다. 금정산성 제2강루를 찾는 길에서는 다소 숲이 차나, 날씨를 통과한 다음 산성고개에서 동문을 지나 부채비워, 제4강루, 원효봉, 북문에 이르는 능선길은 부산 전체를 조망하는 시원한 길이다.

갈맷길 8-1코스

10.0km / 5시간 소요

상현마을 → 땅뫼산 → 명장정수사업소(회동지소) → 동대교 → 동천교(석대리)

2009년 부산 갈맷길 축제 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평坦하고 쉬운 길로 동시에 수영강과 회동호와 수변이 제공하는 경관이 뛰어나다. 수영강의 흐름을 따라 동행하는 길은 부산팔경이 한 곳인 동대를 지나면서 도심을 관통하여 옛 죽수정의 영광이 서려있는 나루공원을 지나 만력교에서 바다에 만난다.

장전구곡가

구현마을 → 명화산 → 명장정수사업소(회동지소) → 동대교 → 동천교(석대리)

2009년 부산 갈맷길 축제 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평坦하고 쉬운 길로 동시에 수영강과 회동호와 수변이 제공하는 경관이 뛰어나다. 수영강의 흐름을 따라 동행하는 길은 부산팔경이 한 곳인 동대를 지나면서 도심을 관통하여 옛 죽수정의 영광이 서려있는 나루공원을 지나 만력교에서 바다에 만난다.

오른대한국순교자박물관

구현마을 → 명화산 → 명장정수사업소(회동지소) → 동대교 → 동천교(석대리)

2009년 부산 갈맷길 축제 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은 길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평坦하고 쉬운 길로 동시에 수영강과 회동호와 수변이 제공하는 경관이 뛰어나다.

수영강과 회동호와 수변이 제공하는 경관이 뛰어나다.